

1960년대 이후 광택소재 이미지 변화에 대한 연구

이 유 경[†] · 이 희 현*

경문대학 모델과 조교수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ing Image of Glossy Materials after 1960s

Yu-Kyung Lee · Hee-Hyun Lee*

Assistant Prof., Dept. of Model Kyung Moon Collage
Prof., Dept. of Home Economics Kwandong Univ.*

(2004. 1. 1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nging fashion image of the glossy materials including metal, leather, vinyl, latex, plastic etc. from 1960's to the present.

Glossy materials used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showed a restricted image combined with a specific social circumstance. They expressed a reflection of young and future-oriented space period of 1960s. Many designers like Paco Rabanne and Andre Courreges were concerned with the fashion of space age and expressed that image with leather and synthetic materials including silver leather, metal chain armor, and plastic appeared as the keynote of fashion. In 1970's, glossy material was the symbol of avant-garde and rebellious attitude by the punk fashion. They maximized glamourous look of 1980s, and cyber look with an expectation for a new millennium of 1990s. On the other side, glossy materials seem to be used as a source of various inspiration of fashion designer in the 21st century. Also, some of the past images, for example space look and glamourous look, are revived in the 21st century by the form of modified design.

Key Words: glossy material(광택소재), futuristic(미래지향적), avant-garde(전위), glamourous(글래머), cyber(사이버)

I. 서론

복식은 시대의 반영물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특히 복식은 가시성이 높고 변화가 빠르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

으며 또한 분석하기에 적당한 대상으로 손꼽힌다. 그 사회의 시대적인 특성 및 주요 사건에 따라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달라지며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선택된다. 따라서 광택소재도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미지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오랫동안 의복재료로 사용되어왔던 광택소재는 희소가치로 인해 일부 왕족이나 상류층에게만 제

*Corresponding author ; Yu-Kyung Lee
Tel. +82-31-610-8175, Fax. +82-31-610-8173
E-mail : yukle@hanmail.net

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귀하고 고급스러운 의류 소재였다. 그러나 과거 금은동 등의 금속과 가죽 등의 천연소재로 한정되었던 광택패션소재는 20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현대 패션에서는 인조가죽, 비닐, 인조고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금속성 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신소재로 그 종류 및 범주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우주시대의 도래와 함께 화려하게 패션의 중심으로 등장한 광택소재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광택소재의 패션 이미지를 10년 단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패션 디자인에서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신소재 개발 및 디자인 기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패션 이미지 및 코디네이션 이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택소재의 범위로는 다양한 fabric을 비롯한 gold 및 silver, 금속성 소재, 가죽, 비닐 및 고무, 플라스틱, 유리, 합성신 소재 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II. 광택 소재의 시대별 패션 이미지

1. 1960년대 – futurism, space look

1960년대는 젊음의 시대로서, 음악, 미술, 미디어, 패션에서의 팔목할 만한 발전과 함께 라이프스타일에서도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¹⁾ 1960년대 젊음의 반란(youthful rebellion)은 의상을 통해 강하게 부각되었고 의상은 변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가죽 의상의 착용이 그 중 하나였다. 1950년대 말 비트족 스타일로 등장한 가죽의상은 1960년대에는 다양한 색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많은 젊은 남녀를 위한 기본의상이 되었다. 재킷, 카디건, 코트, 스커트 뿐 아니라 부츠에도 가죽이 사용되었다. 가죽의 느낌과 더불어 광택 나는 인조소재도 등장하여 wet look을 형성하였다. Maurice Attwood의 ‘wet look’의 레인코트는 1969년에 잘 팔리는 품목 중 하나였다.²⁾ 이처럼 60년대 초 가죽의상은 비트족의 의상이 가지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였다. Beatles는 6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직 그룹이었다. 이들 의상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영향은 화려한 색

상을 조화시켜 넉넉하게 입는 것이었다. 라펠이 더욱 넓어진 double breasted suit가 부활되었고 종종 넓은 가죽 벨트와 함께 착용되었다. 또한 romanticism과 다양한 개성 표현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스타일은 젊음의 이미지화와 스트리트 패션의 하이 패션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패션은 이제 스트리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디자이너인 Rudy Gernreich와 Mary Quant 등도 젊은이들이 입는 의상을 관찰하여 그들의 하이 패션 디자인에 반영하였다.³⁾ 이 시기는 또한 유니섹스 모드의 등장으로 남녀의상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이는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중반과 후반의 특징으로는 미니의 시대를 들 수 있다. 1965년과 1966년을 거치면서 스커트는 점점 더 짧아지고 극도로 짧은 스커트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무릎 위로 올라간 스커트는 부츠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실제로는 젊은층에서만 성공적이었다. 1960년대 의상에서는 색상과 패턴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빠르게 트렌드로 등장한 Art Nouveau revival, op art, pop art 등이 반영된 것이다.⁴⁾

1961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함으로써 우주시대가 열렸다. 우주여행은 이 시대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우주시대의 패션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인간이 달에 첫 번째 발을 들여놓는 순간과 같이하여 우주 시대패션에 대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Space look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스포티하고 경쾌한 스타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시기에 ‘현대 감각적’ 소재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므로, 가죽과 쇠사슬 갑옷, 플라스틱, 비닐, 메탈 등 인공적 소재들이 이 시대 패션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space look을 위해 플라스틱 체인, 원반모양의 플라스틱 귀걸이, 은색 스타킹, 은색 가죽 등이 사용되었다.

건축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Paco Rabanne은 1967년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plate를 연결하여 긴소매의 metal dress를 발표하였다. 또한 Paco Rabanne은 번쩍거리는 코트와 복면 마스크, 스타킹, 신발 모두 은색으로 되어있는 의

상을 커다란 플라스틱 귀고리와 함께 발표하여 패션계에 충격을 주었다. 팝 아트에 지대한 흥미를 느꼈던 그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을 가지고 작업하며 차별화되는 질감을 혼합하고자 하였다. 그 뿐 아니라 현대적인 소재로서 투명한 비닐을 사용하거나 신소재인 알루미늄, 플라스틱, 금속, 유리구슬, 진주, 인조모피 등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을 발표함으로써 소재의 새 영역을 창출하였다. <그림2>에서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 Twiggy가 Paco Rabanne의 미니스커트와 쇠미늘 갑옷(chain-mail armour)과 같은 가죽소재 coat를 입고 있다. Mulvey는 그의 디자인은 1960년대의 자각적 모더니즘(self-conscious modernism)에 걸맞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



<그림1> metal dress
Boucher, p.432



<그림2> leather coat
Cosgrave, p.216

Andre Courreges는 1960년대 최고의 디자이너로서, 그의 작품은 우주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남녀공용의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특이한 소재의 사용은 그가 도시공학 전공자라는 배경을 반영한다. <그림3>은 일명 moon girl look이라 불리는 1964년 작품이다. 흰색의 개버딘 드레스 위에 무릎길이 코트(좌)와 흰색 면으로 된 바지 정장(우)로 두 모델 모두 우주용 헬멧과 흰색 부드러운 양가죽 부츠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흰색 소재를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의 우주시대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Courreges 디자인은 강하고 현대적인 한편 자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의 표현이었으며 우주 탐험에 대한 많은 흥미의 반영이었다. 무릎보다 짧아진 Courreges의 드레스 및 스커트는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만든 종아리 높이의 구두가 아닌 부츠와 함께 착용되었는데, 부츠의 안쪽에 지퍼를 달고 부츠 앞부분은 사각형

의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Yves Saint Laurent은 <그림4>와 같이 코트, 목을 덮는 헬멧,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부츠 모두 가죽으로 된 의상을 비롯하여 은색 sequin으로 연결된 의상, 금속 소재 및 비치는 소재 의상 등을 발표하였다. Pierre Cardin도 우주시대 패션에 동참한 대표적 디자이너였다. Bonnie Cashin은 1965년 실크로 안감을 댄 가죽 트랙 수트를 디자인했다. 이러한 부드러운 가죽의 사용은 space suit image와 연관이 되어있으며,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look으로부터 감각적이고 romantic look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처럼 1960년대의 광택소재로는 금속 및 가죽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기하학적인 형태나 우주복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이는 우주시대 및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대표적 소재 및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moon girl look
Russell, p.476



<그림4> 가죽 의상 Cosgrave Cosgrave, Bronwyn, Costume & Fashion, London: Hamlyn (2000). p.218

2. 1970년대 – avant-garde, punk

1970년대는 종종 데카당스의 시대로 인용되곤 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반항에 대한 욕구로 빠르게 변화했던 1960년대에 비하면 차분한 시기였다. 또한 punk style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첫 번째 시기이기도 하다.⁷⁾ 즉, 여권의 신장으로 인해 pants suit, slacks, jeans 등이 매우 중요한 패션 품목으로 등장하는 평등과 바지의 시기였다. 1960년대에도 왕성한 활동을 했던 Yves Saint Laurent은 pants suits를 발표하여 바지유행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다양한 바지가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여 더 이

상의 패션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남성 또한 재킷, 조끼, 바지로 구성된 값비싼 three-piece suits 외에 가죽제품이나 tight pants, 제3세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국적 제품도 구입하였다. 남성복의 다양성은 이 시기의 가장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의 우세한 패션 이미지는 넉넉함에 대한 *nostalgia*, 자연적 질감, 그리고 *romantic image*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겹 겹쳐 입어 다양한 효과를 내는 layered look 과 전체적으로 혈령한 이국풍의 big look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 중반 패션은 더욱 단순해졌고 과거의 classic jacket과 dress line이 부활되기도 했으나 그 차이점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한 스타일이라는 점이며 둘러 입거나 겹쳐 입기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⁹⁾

1970년대 후반에 punk fashion이라 불리는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가장 흥미 있는 패션 현상 중 하나로 gang fashion으로부터 하이 패션으로 이동한 것이다. Punk fashion은 심각한 청년실업의 시기에 무관심한 사회에 대한 반동과 폭력의 수단이었다.¹⁰⁾ 대부분의 패션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나, punk는 파괴적인 'Hell's Angels' motorbiking 의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Zandra Rhodes 는 검정 바지, 체인과 안전핀이 달린 가죽 재킷과 같은 street punk dress의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압박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표현의 시초였다.¹¹⁾

Punk는 '가치가 없거나 저질인 것', '뜻내기 짚은이', '불량 청소년'의 의미를 갖는 anti fashion이다. 이들의 복식은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준의 미의식에 대해 부정하며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헤어스타일로는 모히칸족¹²⁾의 헤어스타일과 스파이크 헤어스타일 또는 skin head를 선호하였다. 또한 눈언저리를 겸게 선을 두르고 눈초리를 날카롭게 그리며 검은 점을 찍거나 입술을 겸게 칠하는 메이크업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자아내고자 하였다. 면도날, 낡은 볼트, 안전핀 쇠사슬 등의 액세서리는 폭력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끈을 X자로 묶어 올린 군화, 플라스틱 해변용 샌들, 분홍·검정·밝은 파랑 등으로 된 끝이 네모난 장화 등의 신발을 착용하여 punk의 폭력적 이미지를 더욱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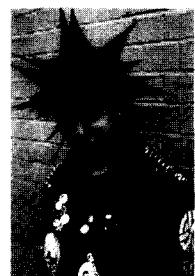
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식을 착용하며 문명파괴적인 양상을 보임으로써 극단적인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의 표현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불필요하게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패션은 늘 과장되었으며 젊은 세대는 때때로 그들의 부모세대와 같은 기성세대들을 놀라게하고 위협하려고하였다.¹³⁾ Punk 집단은 광택이 나는 가죽이나 가죽처럼 보이는 직물, 고무나 플라스틱제의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플라스틱과 그물망으로 된 셔츠, 모조 표범가죽, 당돌한 메시지나 슬로건이 프린트된 혈령한 티셔츠 등 일부러 무질서하게 조화를 이루어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¹⁴⁾ 이들의 의상에는 분홍과 같이 강하고 눈에 띠는 색이나 검정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은 미니스커트와 발목 길이의 부츠의 착용을 즐겼다.

<그림5>의 여성은 가죽 미니스커트와 그물 스타킹, 가죽 ankle boots를 착용하고 머리는 빨강색으로 염색한 모습이며 남성은 스키언헤드 스타일에 가죽 부츠를 착용하였다. <그림6>은 눈 주위에 눈초리가 날카롭게 보이도록 검은 테두리 선을 그리고 입술을 겸게 칠하는 등의 전형적인 punk 메이크업과 젤을 사용하여 완성한 공격적인 헤어스타일, 금속 스파이크가 촘촘하게 박힌 검정 가죽점퍼를 착용하여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5> punk fashion
정삼호, p.177



<그림6> punk fashion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p.172

Punk fashion의 선두주자인 Malcolm McLaren과 Vivienne Westwood는 가죽점퍼, peg pants, kilts, 메시지를 프린트한 공격적인 티셔츠, Spider man weave의 모헤어 스웨터를 가지고 1971년 King's Road에 'Let it Rock'이란 상점을 개점하였다. 커다

란 jack boots와 chains 그리고 spiked leather jackets를 착용했고, 머리카락은 요란하게 염색했으며 헤어 젤을 사용하여 뿔, spikes 또는 Mohican족 같은 기괴한 모양을 만들었다. 신체를 piercing하거나 안전핀을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punk look의 토템 이미지를 완성했다.¹⁵⁾

이처럼 Punk는 1970년대 패션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고,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짧은 anti-fashion이었으며 스트리트 문화로 시작되어서, 그의 악명 등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광택 소재는 가죽, 플라스틱, 금속 스파이크, 안전핀, 면도날, 쇠사슬 등을 중심으로 avant-garde fashion 또는 punk fashion과 같이 지극히 반항적이고 도발적인 시대사조를 상장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1960년대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차원의 상징이다

3. 1980년대 – glamour

펑크패션의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초에는 신남만주의 스타일이 나타났다. 영국의 Charles 왕자와 Diana의 약혼식에 즐음하여 Diana look이라는 낭만적인 스타일이 부활하였으며 블라우스, 스커트, 드레스의 목선 및 단선에 러플이 달린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자웅동체’의 의미를 지닌 androgynous look이 등장하여 남성복과 여성복이 크로스오버된 디자인이 나타났다. New wave fashion 또한 이 시기의 특징적인 style로 1980년대 이후 전위 패션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상방된 요소들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보였다. Yuppie의 등장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을 표현해주는 의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고 미국의 Donna Karen, 이탈리아의 Georgio Armani와 같은 디자이너 상표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초 디자이너들은 몸매를 더 강조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길고 풍성한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즉, 짧은 재킷과 함께 길고 풍성한 스커트를 착용하였으며 파리에서 Karl

Lagerfeld는 큰 벨트로 가는 허리를 강조한 50년대 스타일의 스커트를 제시하였다. Tailoring은 1980년대의 중요한 패션으로 등장하였다. Day wear를 비롯한 모든 용도에 수트가 착용되었으며 수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도 갈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상의의 넓은 어깨 패드는 상대적으로 좁은 hip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⁶⁾

1980년대 중반경 여성들은 더 여성스럽고 우아한 모습을 선호하였고, Karl Lagerfeld, Claude Montana, Yves Saint Laurent 등은 화려한 sash나 가죽 벨트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넓은 어깨와 약간 짙어진 스커트에 가는 힙이 특징인 V자 모양의 여성복을 제시하였다. 헬리우드 스타일 글래머에 대한 흥미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인기 드라마 'Dynasty'의 두 여주인공 Linda Evans와 Joan Collins는 넓은 어깨, 날씬한 힙과 매혹적인 뒷모습으로 모든 패션 집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순수한 글래머 시대가 되었고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에 화려함이 더해졌다. 여성들은 다시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화려한 외출복을 좋아했으며, 호화로운 새틴 소재의 under wear는 기능주의 보다는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브닝 웨어 중에는 인체선에 밀착되는 PVC, 라텍스고무, 라이크라 등 자극적이고 외설스러운 천과 장식용 뜻을 박은 디자인 등이 대유행이었다<그림7>.¹⁷⁾ <그림8>은 Claude Montana의 1982년 작품으로 black lace bodice와 함께 착용된 가죽 수트이다. 타이트한 스커트와 낙낙한 재킷을 착용하였으며 가죽 벨트를 사용하여 glamourous한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1977년 최초로 collection을 개최하자마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게 된 그가 가장 선호하는 소재는 가죽이었다. 레이스 등 질감이 다른 소재와도 과감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으며 특이한 디자인 조차도 심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⁸⁾ <그림9>는 inner wear적 요소의 도입과 밀착과 노출을 통해 인체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Jean-Paul Gaultier의 작품이다. Underwear를 outwear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디자이너로 평가되는 그는 부분적으로 광택소재 새틴을 사용하여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이고 매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7〉 라텍스 dress
정현숙 역, p.276



〈그림8〉 가죽 수트
Boucher, p.436



〈그림9〉 underwear style dress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p.184

이처럼 1980년대에는 새틴 등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가죽, 비닐, 라텍스, 라이크라 등을 사용하여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 시기 광택소재는 여성의 *glamorous*한 모습을 더욱 *glamorous*하고 매력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1990년대 – cyber, new millennium

하나 뿐인 지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되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패션에도 에콜로지, 에스닉(ethnic), grungy, neo-hippie, retro, 역사주의(historicism) 스타일 등이 두드러진 흐름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린 마케팅의 등장과 새로운 기술을 유도하였다. 1990년대 전반부의 패션에는 경기침체와 걸프전의 영향으로 절제와 구시대로의 복고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고도로 산업화된 물질문명과 개인주의로 치닫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세기말적 경향과 미래적 영향이 공존하고 있다.

미술계에서도 영역간의 수렴현상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회화에 오브제가 첨가되거나 화면 자체에 입체적인 성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또한 조각에서는 표면효과의 강조와 색채의 사용 등을 통해 2차원적 요소가 강조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예술은 경제와 연관되어 예술 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유선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증가했다. 또한 계속된 기술문명의 발전은 컴퓨터,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가상현실에投身해 기존의 현실을 거부하고 첨단적이고 컬트적 이미지를 동경하는 풍조를 만들기도 했다.¹⁹⁾ 또한 1990년대는 1980년대에 추구되었던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강하고 거센 반발이 나타났으며 냉소주의는 낙천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²⁰⁾ 1990년대는 미래학자들이 예전하듯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이동해가며 국제화 또는 세계화되는 새로운 21세기로 이행해 가는 전환기적의 시기이다. 다가올 새로운 밀레니엄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었으며,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로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 기계와 문화, 물질과 정신에 대해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들을 제공해주는 인간 생태학과 인지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감성공학에 대한 인식도 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 사회 도래에 의한 문화의 변화는 패션에도 끝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 및 사이버 환경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환경으로서, 미래를 현대로 끌어들이는 사이버 디자인 의상이 관심을 끈다. 패션 디자인에서도 미래의 가상현실이 반영된 테크노 스타일 의상에 대해 현대인은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첨단기술에 대한 매력과 미래지향적인 요소의 테크노풍은 라텍스, 왁스코팅 등의 하이테크가공 소재를 사용하여 테크니컬한 이미지와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미니멀리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하였다.²¹⁾

테크노 스타일 디자인은 특히 메탈, 광택소재, 기계적 메시지를 사용함으로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미의 개념자체가 파괴되는 해체주의적인 패션개념인 안티패션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20세기 통신 및 제어이론인 인공두뇌학(cybernetics)

과 기존 사회에 반항적 성격을 띤 평크의 합성어인 *cyber punk*라는 하위문화가 등장하여, 하이테크, 반항적 패션요소, 원시적 요소의 융합이라는 특징을 전개한다.²²⁾

다양한 광택 신소재가 등장하는 바, <그림10>은 과학기술이 반영된 첨단 신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우주복의 형태를 살려 우주감각을 표현한 미래지향적 의복이다. <그림11>은 절제된 검정 드레스를 현란한 빛과 색채의 광택소재로 장식하여 정보화 사회의 감각을 살리고 있다. <그림12>는 유연성 대신 성형되는 광택소재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표현해 준다. 디자이너인 Hussein Chalayan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의 사이버이미지는 소재에 변화를 추구하여 투명하거나 메탈코팅 소재, 메탈느낌의 하이테크 소재, 플라스틱, 비닐 소재 등의 광택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기하학적 디자인 라인을 사용하여 때로는 *avant-garde*하고 때로는 테크니컬한 이미지로 미래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10> '99 S/S
Callaghan
MODAIN, No.112,
p.45



<그림11> '98-'99
F/W Hanae Mori
Fashion News
(1998. 10). p.55



<그림12> '98-'99
F/W
MODAIN, Hussein
Chalayan
MODAIN, No.110,
p.28

5. 2001년 이후

광택소재는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종류 및 사용법주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메탈, 비닐, 스팽글, 투명 플라스틱, 가죽 등의 시도가 더욱 과감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신소재의 등장과 더불어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1960대부터 메탈 등의 소재에 몰두해온 Paco Rabanne은 <그림13-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광택소재로 미니멀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Louis Vuitton은 <그림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적인 트렌치 코트에 광택이 돋보이는 비닐 소재를 사용하여 신선함을 부각시켰다. Philosophy는 귀엽고 순수한 소녀 이미지를 tiny 니트와 금속 링을 연결한 미니스커트로 연출하고 있다 <그림13-3>.

광택 소재 의상들은 street couture로 해석되기도 하고 60년대 스타일을 결합한 space look으로도 연출되었다. '03-04 F/W Collection에서 Christian Dior, Alberta Ferretti, Burberry 등이 선보인 비닐 소재는 미니멀한 라인과 함께 futurism을 제안하거나 평크적인 분위기로 신선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3-4>. 또한 sequin과 같은 글리터링 소재들에 럭셔리함을 가미해 glamourous한 스타일을 연출해내기도 한다. <그림13-5>는 glam look의 중심에 있는 Yves Saint Laurent의 Tom Ford 작품으로 다크 브라운의 가죽 short jacket과 프릴이 달린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베이지색 새틴 스커트를 조화시켜 femiculine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13-6>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shantung 소재의 드레스로 bodice 부분의 underwear 느낌의 디자인과 풍성한 스커트의 드레이프가 조화를 이루며 품위있는 glam look을 연출한다.

이전과는 달리 기능적 용도의 바지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템에 광택소재가 사용된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그림13-7>은 가장 캐주얼하고 기능적인 소재를 사용하던 sleeveless top과 jean style의 바지에 기존의 상식에서 탈피하여 sequin과 새틴류의 광택소재를 사용한 점이 흥미롭다. 최근의 sporty chic의 열기는 스포츠 웨어를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시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화 'Top Gun'에 등장하는 Tom Cruise의 비행사 복장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bomber jacket은 2003년 유행 아이템으로 등장했는데 rider look, biker fashion 등과 함께 광택소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이다 <그림13-8>. 또한 스키복, 스노보드복 등의 active sport wear에서도 화려한 광택소재가 사용되어 기능적 의상을 화려하고 하이 패션 스타일의 세련된 의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2001년 이후의 광택소재는 20세기와는 달리 어느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 표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광택소재의 이미지를 재해석해 반영하기도 하고 디자이너의 새로운 영감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space look이나 glamourous look과 같이 그 당시의 이미지가 21세기에 약간의 변형을 거쳐 새롭게 재현되는 특징도 고찰할 수 있었다.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은 디자이너들에게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며 새로운 시도를 요구한다.

13-1. '03
S/SPaco
Rabanne3-2. '03
S/SLouis
Vuitton13-3. '03
F/W
Philosophy13-4. '03
F/W
Christian
Dior13-5. '03
S/S Yves
Saint
Laurent13-6. '03-
'04
F/WMaska13-7. '03-
'04
F/WCeline13-8. '03-'04
F/W
Just Cavalli〈그림13〉 2003 Collection
Collection, 동아 TV

II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사용된 광택소재는 특정 시대의 사회상과 맞물려 제한적인 이미지를 갖고 사용되었다. 1960년대의 광택소재로는 금속 및 가죽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기하학적인 형태나 우주복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이는 우주시대 및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하

는 대표적 소재 및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광택 소재는 가죽, 플라스틱, 금속 스파이크, 안전핀, 면도날, 쇠사슬 등을 중심으로 avant-garde fashion 또는 punk fashion과 같이 지극히 반항적이고 도발적인 시대사조를 상징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새틴 등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가죽, 비닐, 라텍스, 라이크라 등을 사용하여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 시기 광택소재는 여성의 glamourous한 모습을 더욱 glamourous하고 매력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cyber image 및 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감은 소재에 변화를 추구하여 투명하거나 메탈코팅의 소재, 메탈 느낌의 하이테크 소재, 플라스틱, 비닐 소재 등의 광택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기하학적 디자인 라인을 사용하여 때로는 avant-garde하고 때로는 테크니컬한 이미지로 미래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01년 이후의 광택소재는 20세기와는 달리 어느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 표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광택소재의 이미지를 재해석해 반영하기도 하고 디자이너의 새로운 영감을 표현하는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space look이나 glamourous look과 같이 그 당시의 이미지가 21세기에 약간의 변형을 거쳐 새롭게 재현되는 특징도 고찰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은 디자이너들에게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며 새로운 시도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광택소재를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시대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21세기에 사용되는 더욱 복합적이고 확대된 광택소재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광택소재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가늠해 보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0). *Decades of Beauty*. London: Octopus Publishing Group Ltd., p.136.
- 2) 정현숙 역 (1992). 20세기 패션. 경춘사, pp.200-221.
- 3) Russell, Douglas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p.473.
- 4) Victorian & Albert Publications (1984).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London: Victorian & Albert Publications, p.97.
- 5)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2). Op. cit., p.143.
- 6) Cosgrave, Bronwyn (2000). *Costume & Fashion*. London: Hamlyn, p.218.
- 7)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2). Op. cit., p.155.
- 8) Russell, Douglas (1983). Op. cit., pp.472-473.
- 9) Ibid., p.479.
- 10) Laver, James (1985).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272.
- 11) Victorian & Albert Publications (1984). Op. cit., p.98.
- 12) Hudson 강 상류에 살던 북아메리카 원주민
- 13) 정현숙 역 (1992). Op. cit., pp.249-250.
- 14) 정삼호, 김영숙 (1996).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pp.177-178.
- 15)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0). Op. cit., p.160.
- 16) Ibid., p.178.
- 17) 정현숙 역 (1992). Op. cit., pp.249-250, p.276.
- 18) Boucher, Francoi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436.
- 19)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7). 복식문화. 교문사, p.241.
- 20)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0). Op. cit., p.190.
- 21)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7). Op. cit., p.243.
- 22) 이유경 (1999). 정보화 사회가 현대 의상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창간호, p.41.